

배포 일시	2022. 7. 12.(화)		
담당 부서	부동산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백승호 (044-201-3411)
		담당자	사무관 양국현 (044-201-341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	

리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'22. 7. 12. 서울경제) >

- ◆ 파주운정역 서희대한(서희건설)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
- ◆ 리츠 인가심사기간 평균 46일 행정절차 소요와 리츠 상장시 의무사항인 지정감사인 제도 등도 부담

□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「파주운정역서희대한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이다.」 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보도내용에 언급된 키움코어리테일제1호리츠 및 파주운정역서희대한 제3호리츠에 대해 각각 지난 6월 13일 및 7월 5일에 이미 영업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리츠 인가·등록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*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지속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발의('22.7.11, 김정재 의원 등 10인)

☞ 공모리츠 인가시 중복절차 개선, 영업등록 심사시 사업계획 검토 생략 등